

# 데이터가 경쟁력... 고객 신뢰 회복 바탕 초개인화 서비스

## 증권사 경영전략

### NH투자증권

사모펀드 이슈로 고객에 큰 심려 고객 신뢰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 데이터 자산 활용 역량 새 경쟁력 디지털 역량 강화 전담본부 신설



정영재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NH투자증권의 올 경영전략 화두는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통한 디지털화다.

NH투자증권은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난 오픈마켓 사모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운용사가 작성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 설계한 상품이지만 부실한 검증으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의 해당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이다.

정영재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사모펀드 이슈로 고객에게 큰 심려를 드렸다"며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업(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올 신년사에는 '고객'이라는 단어가 총 33번,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한다. 최우선 과제로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꼽은 것이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의 주요 세대가 20~30대로 변화하고, 자산관리서비스는 대중화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해 우리도 서둘러 서비스를 재편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업(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가 말한 '금융투자업의 본질'은



NH투자증권 본사

이란 고객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금융투자서비스 파트너를 의미한다. 고객의 요구(니

즈)와 목표를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고객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앞으로 (NH투자증권의) 차별화는 상품과 서비스 라인업보다는 '고객 경험'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고객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 초개인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WM디지털사업부' 신설

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광범위한 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디지털 역량 강화와 자산관리(WM)에 초점을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WM디지털사업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비대면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디지털영업부와 디지털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디지털솔루션부부를 편제할 것이다.

정 대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모든 산업의 양태와 경쟁 기반을 바꿔 놓고 있는데, 금융투

사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프라이빗 뱅커(PB) 수준에 가까운 자산관리서비스가 대량(매스·mass) 고객 대상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뤄질 수 있고, 기관 대상 단순 중개 서비스는 중개시스템의 속도와 알고리즘의 경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10년간 자본의 크기가 금융투자업의 핵심 경쟁 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자산의 크기와 활용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고객이 데이터를 제공할 '의향'과 '동의'를 얻기 위해선 고객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경험과 우리에 대한 신뢰가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른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을 위해 일한다는 진정성을 증명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좀 더 치밀하게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저평가 건설株, 한달 새 31% 상승... 주택공급 확대 기대

## metro 관심종목

### GS건설

밸류에이션 PBR 기준 0.64배 5년 평균 0.7배 대비 저평가 주택공급 통제 이익 개선 전망

GS건설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 중심에서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성을 전환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졌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8일 4만1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2월 초(12월 1일 종가 기준 3만1800원)와 비교했을 때 한 달 사이 31.3%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동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건설주 주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가 급락이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지연, 기존 프로젝트의 공정 지연과 총당금 적립으로

(GS건설 증권사별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현대차투자증권	5만2000원
한화투자증권	4만9000원
하나금융투자	4만8000원
KB증권	4만65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4만5000원
대신증권·유안타증권	4만2000원

이어져 연중 약세를 보여왔다"며 "건설주 밸류에이션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GS건설 0.64배로 과거 5년 평균 0.7배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현대차투자증권이 5만2000원으로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 4만9000원, 하나금융투자 4만8000원, KB증권 4만65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4만5000원, 대신증권·유안타증권 4만2000원 등의

순이다.

GS건설은 주택공급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중장기적인 이익 개선세가 나타난다는 전망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2019년 1만6600세대로 부진했던 GS건설의 주택공급은 2020년 2만7000세대로 증가했다"며 "대형건설사의 주택시장 시장점유율(M/S)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2021년에서 2만7000~2만9000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승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이'의 높은 브랜드 경쟁력을 통한 수도권·광역시 정비사업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나아가 증권업계는 올해 GS건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0조9500억원, 9389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9.3%, 21.9%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턴어라운드'의 주요 요인은 주력사업인 주택·건축 부분의 매출 증가에

기인한다"며 "실질적으로 착공이 시작된 현장 개수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주택 마진 레벨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과 같은 굵직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도 비교기업(peer) 대비 안정적 실적 성장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해 2분기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섀다운으로 인해 현장 비용 1200억원을 일시적 원가로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GS건설은 다양한 신사업 추진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데이터센터 사업을 기존 단순 시공에서 운영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며 "그 외 2차전지 재활용,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스마트양식 등 건설·환경 관련 분야의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 미래에셋대우

## AI 기반 'm.Club' 가입 50만명 돌파

미래에셋대우는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인 '엠클럽(m.Club)'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m.Club'은 2019년 말 기준 약 2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현재 50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m.Club 콘텐츠 중 이용 고객이 가장 많은 '초고수의 선택'은 미래에셋대우 투자수익률 상위 1% 고객들의 매매 종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투자능력 수준을 확인해 주는 'Dr.Big의 투자진단', AI답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미국 스앤더드앤드푸어스(S&P)500종목의 향후 주가 예측 등락을 제공하는 '과라의 주가예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개인연금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비중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Dr.Big의 연금ETF포트폴리오' 등 콘텐츠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당일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는 특징적인 테마·섹터를 포착하고, 고객이 직접 주요 수급 검색 조건을 취향에 맞게 조절해 수급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Dr.Big의 수급포착'을 런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권오만 미래에셋대우 디지털Biz본부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양질의 정보를 적시에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m.Club 콘텐츠는 보다 쉽고 유용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재인 기자 yji1208@

# 인천·경기 중심 전국 15곳서 1만가구

## 분양 캘린더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건본주택 개관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1만578가구(오피스텔·임대포함, 도시형 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아파트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10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인천·경기와 영남권 물량이 집중돼 있다. 인천 부평에서는 롯데

건설과 포스코건설의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와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경기 워레신도시에서는 GS건설의 '워레자이더 시티'와 경북 포항에서 삼구건설의 'KTX포항역 삼구 트리니엔'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 서울은 물량이 없다.

건본주택은 1곳이 개관한다. 8일 한화건설의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며, 1월 둘째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 투시도.

/리얼투데이

주에는 GS건설의 '가평자이'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

당첨자 발표는 7곳, 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의 당첨자 발표가 예정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